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막말 정치는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을 부른다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좌우한다. 정치는 국민의 사고(思考)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점쟁도 하고 발전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을 정치권이 쥐고 있다. 옛날에는 왕이나 군주, 지배계급이 절대 권력을 독점하고 자의적(恣意的)으로 휘둘렀으나, 지금은 독재를 막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취하도록 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든 권력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조직에 모으려는 집중의 속성을 갖고 있고, 견제가 없으면 전횡(專橫)과 남용(濫用)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고통의 역사적 교훈을 거지며 권력의 선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제도를 마련했으나 지금도 권력의 오용(濫用)과 남용은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집이 끝 국가다'는 말은 유명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생활을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이다.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을 욕하지만 정치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행

동은 대통령령과 입법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이 '막말 따 먹기' 하듯이 서로 막말 경쟁에 재미를 붙인 듯 보인다. 여기에서 일일이 모두 말하기도 낯 뜨겁다. 국회에서 불쌍사나운 몸싸움을 하지 말자고 여야(野)가 서로 합의해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은 어디까지나 수(數)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서로 잘했다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품격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렇게 실망과 절망을 합쳐서 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막말로 한 방 더 먹였다. 그로기상태로 비틀거리며 정신적 공황을 겪는 국민들을 한 번 더 먹여서 낙다운 시키지는 심상으로 보였다. 세상도 비정하고 정치는 더욱 비정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순박한 정신을 가진 보통사람들은 정치에 함부로 뛰어들어 가지 권할 수가 없다. 보통 심장을 가진 사람은 정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왜 막말하기를 좋아하는 걸까. 이는 정치심리학자도 아니고, 사회심리학자도 아니다. 더구나 언어분석 철학자도 아니다. 우리 사

회의 상식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 변두리에 몸도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소견을 말할 뿐이다. 정치인 막말의 원인은 첫째,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보도된다. 같은 처지에 있는 정치인은 자기들의 입장을 시원하게 대변한 정서를 갖게 된다. 일역 무명에서 동류(同類)의 리더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일반 국민들도 그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알게 되고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인구(人口)에 화자(膾炙)된다. 정치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다. 자기 지역구 주민들과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지명도(知名度)가 높아진다. 이것을 마다할 정치인은 절대 없다. 정치인은 자기가 죽어서 부고(訃告)가 언론에 나는 것만 싫어하고 신문이든, 방송이든, 텔레비전이든 언론에 이름이 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언론 매체 카메라에 나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인을 볼 때는 차라리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런 정치인을 직접 많이 보아 왔다.

셋째, 언론 보도 자체가 큰 홍보 자료가 된다. 다음 선거에서 홍보 책자와 유인물에 사용할 아주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돈 안 들고 선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언론 보도다. 홍보 자료를 넘어서 자신의 업적이나 경력 사

항이 될 수도 있다. 막말을 하고 유감 등 적당한 변명과 여실론(余實論)과, 합리화로 다시 한 번 더 언론에 보도되는 기회를 안게 되는 수도 있다.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니고 일석삼조(一石三鳥), 일석사조(一石四鳥) 정도는 된다.

이러니 머리 좋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로 잘하면 일약 스타가 된 듯 착각을 주는 막말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일은 지켜야 할 정도(程度)가 있고, 한도(限度)가 있고, 예의가 있다. 정치인들은 금도(襟度)가 있어야 한다고 표현한다. 금도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만한 도량을 뜻한다. 아무리 정치의 세계가 각박하고 비정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한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사회의 지도층이요, 국가사회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이 막말을 좋아하고 남에게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막말을 주고 받는 세태는 정치 불신을 화나 있는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할 뿐이다. 일반사람들만도 못한 자질 없는 정치인들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깨어있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이다. 선거 때, 막말과 잘못된 행동을 한 정치인은 깨끗이 낙선시켜야 한다. 국회나 소속 정당 윤리위원회 처리, 법적인 절차와 심판을 떠나서 평소에도 잘못된 국회의원을 국가의 주인인 주민들이 소환해서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는 법제도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소환 파면할 수 있는 입법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막연하지만 깨어있는 국민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社說

경찰, 물리력 사용 완화해야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 경찰관은 전기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이 최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주취자 난동 제압과정에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자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물리력 행사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도 높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킬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제정안은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지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대상자가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려 할 때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이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공권력 강화와 매맞는 경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은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弃轉疑星

교괄 변 구물 전 의심할 의 별 성

弃轉疑星

▷ 뜻: 많은 사람들의 관(冠)에서 변역(變역)하는 구슬이 별(星)인 의심(疑心)할 정도(程度)인.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화재의 18.2%, 화재 사망자의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때문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

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

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 사용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는 '가정용 소화기'이다.

주택용 소화시설만 잘 갖추고 있더라도 발화 후 초기 5분 이내라는 '화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주택화재의 절반 이상(54.6%)이 부주의에 의

한 사고였다고 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평상시에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해 작은 화재가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동석 / 보성빌 교119안전센터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two women and the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t includes a logo fo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Development Foundation).